



갤러리아명품관 “가을엔 글러브 백 매고 피크닉 가요” 갤러리아명품관은 올 가을 시즌 가방 트렌드로 이색 디자인의 ‘젠더리스 가방’ 아이템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갤러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편집 매장 지.스트리트494음모에서는 장갑 모양 가방, 아코디언 모양 가방 등 다양한 젠더리스 가방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아명품관

“꿀잠 자고 싶어요”

# 잠 못 드는 열대야 ‘숙면제품’ 불티

기능성베개 매출 전년동기비 2배 ↑  
아로마 캔들·수면 관련 서적 등 인기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하면서 질 높은 수면에 대한 니즈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열대야로 인한 불면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G마켓에서 최근 한 달(7월 14일~8월 13일) 간 수면 용품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쿨링 기능 등을 갖춘 기능성베개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04%) 신장했다. 더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메모리폼 베개와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각각 71%와 70%씩 더 팔렸다.

더위로 인해 주기적으로 잠에서 깨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편안한 호흡을 유도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 주는 제품들도 주목 받고 있다.

쿨등에 붙여 원활한 호흡을 돕는 숙면 코밴드 판매는 동기간 2배 가까이(94%) 더 팔렸다. 또, 더위로 올라간 불쾌지수와 심신을 가라앉혀주는 아로마 캔들 판매는 29% 신장했다.



쿨쿨 쿨링 베개(왼쪽), 브리드라이트 숙면코밴드. /G마켓

뿐만 아니라, 한밤중 요란한 매미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귀마개/소음방지 상품도 34%의 판매 신장세를 보였다.

서점가에서도 수면을 다룬 과학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떠올랐으며, SNS에서는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수면 경제)’란 말이 등장할 만큼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2012년 5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수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자, 주요 백화점들은 침구 할인 행사 및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고객을 사로잡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고객들을 상대로 수면 컨설팅을 해주는 ‘꿀

잠 페어’를 진행해 큰 관심을 모았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침구 할인 행사인 ‘쿨베딩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바세티·알레르망·설베딩 등 2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최초 판매가 대비 50~70% 할인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면 환경은 다르지만 ‘질 높은 잠’을 통한 더 좋은 일상에 대한 니즈는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좋은 수면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게 돕는 다양한 휴퍼니싱 제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이마트, 고랭지 수박 30% 할인판매

고랭지 1모작 수박 물량 대폭 확대  
고지대서 재배해 최적의 여건 조성

이마트가 고랭지 수박 물량을 대폭 늘린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경북 영양, 봉화 등지에서 출하된 ‘고랭지 1모작 수박’인 산(山) 수박 10만 통을 기존 대비 30% 가량 할인된 1만 2500원(7~10kg/통)에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고랭지 1모작 수박은 국내 최대 수박 산지인 충남 부여, 논산 등지가 아닌 경상북도 영양, 봉화 등 해발고도 3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된 것으로, 이마트는 지난해보다 준비 물량을 60% 가량 늘렸다.

폭염으로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일반 평지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물러지고, 당도가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은 고랭지 수박이 인기를 끌기 때문이다.

실제, 이마트의 지난해 8월 고랭지 1모작 수박 매출신장률은 325.8%를 기록하는 등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고랭지 1모작 수박의 산지인영양, 봉화는 일반 평지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클 뿐 아니라, 일조량이 많고 통풍이 잘 돼 수박 생육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조성된다.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면 낮 시간 동안 과일이 활발한 광합성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 후, 이를 야간에 고스란히 당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진다. 또, 작물이 밤 사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과피가 단단해지고 아삭한 식감, 짙은 향을 자랑하는 수박이 생산된다.

이러한 이유로 8월이면 고랭지 수박 출하량이 늘어나고 수요 또한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지대가 널리 분포된 강원, 영남의 수박 출하 비중은 7월 40% 수준에서 8월 50%로 10%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원선 기자



## GS25, 노케미족 위한 ‘넬리소다세탁제제’

북미 인기상품... 편의점서 첫 선

환경오염 및 건강을 우선하는 트렌드에 노케미족(화학성분보다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과 체크슈머(제품의 성분과 원재료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확산되면서,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세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데이터사이언스팀은 상반기 매출 데이터를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친환경세제 분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5% 성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GS25는 자연유래 원료로 만들

어져 캐나다, 미국 등 북미에서 인기가 높은 넬리소다세탁제제를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GS25가 이번에 출시한 넬리소다세탁제제는 피부 자극은 적고, 생분해도(세제와 비누등이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 것)는 우수하다. 북미에서 환경과 건강을 고려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인 에코로그(Ecologo)를 받았다.

넬리소다세탁제제는 합성계면활성제, 인산 등 일반 세제에 사용되는 7가지 화학성분 대신 소다, 소금 등 자연 유래 성분이 사용됐으며,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는 등 공개하고 있어 신뢰도를 높였다. /김민서 기자

## 현대백 “추석선물도 킬러버”... 이색세트 40종

소용량 다품목 선물세트 2배 늘려  
과일·수산물 세트 등 1인가구 공략

현대백화점이 추석을 앞두고서도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함께 넣은 이색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단일 품목의 대용량 선물세트 대신 용량이 작지만 여러 품목이 포함된 선물세트로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2일까지인 2019년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올라보레이션 선물세트’를 지난 추석 때보다 2배 늘린 40종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올라보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식구수가 적은 만큼 단일 품목의 대용량 제품보다는 여러 품목이 함께 구성된 소용량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추석



/현대백화점

선물세트 판매기간 선보인 ‘로브스터·전복’, ‘애플망고·사과’ 등의 ‘올라보 선물 세트’가 모두 완판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과일 올라보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와 망고를 섞은 ‘아보카도·망고세트(8만5000원~9만5000원)’와 사과·배·샤인머스켓을 혼합한 ‘혼합 선물세트(10만~12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멜론·거봉·사과·황금향 등으로 구성된 ‘과일 바구니세트(16만원~18만원)’도 명절 선물세트로

내놓았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갈치·딱새우·가자미 등 제주산 수산물을 혼합한 ‘제주 만찬 세트(12만원)’, 전복과 로브스터를 혼합한 ‘전복·로브스터 세트(18만원)’와 제주산 돌돔과 뽕꼬뽕을 함께 포장한 ‘제주 돔 세트(18만원)’, 전복·영덕게살 등을 혼합해 만든 ‘어부의 밥상 명품어찬 혼합 세트(15만원)’ 등도 선보인다. 이밖에 버터·치즈·올리브유 등 인기 상품을 포장한 ‘구르메 치즈 세트(9만8000원)’와 쌀·잡쌀·적두 등을 모은 ‘유기농 금쌀 오곡 세트(13만원)’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소포장 200g 단위 소포장 한우 선물세트를 정육 선물세트 물량을 4배 이상 늘리고, 고등어·삼치 등을 소포장해 간단히 데워먹을 수 있는 ‘생선구이 세트’ 등도 첫 선을 보인다. 또한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 ‘원테이블’의 선물세트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신원선 기자

## BGF리테일,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추석 전 상품 및 물류 중소기업사에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여 개 업체들의 상품 거래 및 물류 정산 대금 약 500억 원을

평소보다 약 1주 가량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은 9월 10일이다.

BGF리테일은 매년 명절에 앞서 중소기업사 거래 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유연한 지급 기준으로 거래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사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동반성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